

이스라엘군 가자시티 포위...시가전 돌입 초읽기

가자지구 남북 분리 시켜... '하마스 포위망' 구축 공습 강화 전쟁 이후 어린이 4000여명 등 팔레스타인인 9700명 사망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앙부를 관통, 지중해 연안까지 진출하면서 '하마스 포위망'을 구축, 시가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시티와 나머지 지역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가자지구를 하마스가 있는 북부와 피란민이 모인 남부의 두 영역으로 분단한 것이다.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5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했다"고 밝히면서 "오늘로써 '북(北) 가자'와 '남(南) 가자'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군 정찰부대가 해안에 도착해 그곳을 점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스라엘 본토에서 가자지구에 진입한 뒤 가자시티 남쪽 경계선을 따라 점령지를 확대해 온 남부 방면군이 지중해 연안까지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가자시티를 완전히 에워쌌다는 의미다.

서쪽으로 지중해에 면한 가자지구는 북쪽과 동쪽으로는 이스라엘과,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각각 국경을 맞닿고 있다.

최대도시이자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시티는 북쪽 끝에 치우쳐 있는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허리를 끊음으로써 가자시티를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해 고립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스라엘군은 이대로 포위망을 굳힌 채 가자시티 공습을 강화하고, 동시에 산발적인 침투작전으로 하마스 군사목표물과 주요 인사를 제거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가자 북부에서는 이날 밤 여러 차례 거센 폭발이 관측됐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일간 하레츠 등 이스라엘 언론은 향후 48시간 안에 가자시티 내부에서 시가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조너선 콘리커스 중령은 CNN 방송 인터뷰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주 전투지역인 가자지구 북부 특정지역에서 사전 고지 및 경고한 후 여러 시간 발포를 멈췄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남쪽으로 갈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쪽 주민들이 남부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의 '인간방패' 전술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자시티에서 민간인들을 빼내려는 시도로 보인다.

유엔은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150만명이 피란했다고 밝혔지만, 가자시티를 비롯한 북부 일대에는 아직도 수십만에 이르는 민간인이 유엔이 운영하는 시설 등에 의탁한 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가 장악한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이스라엘군의 포위망 이남에서도 민간인이 공습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가자지구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날 전쟁이 시작된 뒤 현재까지 팔레스타인인 최소 9700명이 살해됐으며, 이중 4000명 이상이 미성년자와 어린이들이라고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일대까지 난민촌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의 잔해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전날 밤 알마까지 난민촌이 공습당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일반 주민을 '인간방패'로 삼은 탓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민간인과 무장세력을 구분하기 힘든 지역을 공습하면서 통상 실시하던 사전 경고조차 하지 않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동의 아랍국가들을 위시한 세계 각국인 민간인 희생을 멈추기 위해 즉각적인 휴전을 주장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일시적 교전 중단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7일 자국을 기습공격해 1천 400명을 살해한 하마스에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휴전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일 이스라엘 남부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질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휴전은 없을 것"이라며 "이것(휴전)은 어휘집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별세 배우 매슈 페리 '프렌즈' 재상영 수입만으로 한 해 200억원 넘게 벌었다

지난달 별세한 할리우드 배우 매슈 페리가 대표작 '프렌즈' 재상영 수입만으로 한 해에 200억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페리가 시트콤 '프렌즈'의 TV 재방송과 스트리밍 플랫폼 재상영으로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2000만 달러(약 2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렌즈'의 배급권을 소유한 워너브러더스 측은 이 프로그램의 재상영으로 배우들에게 지급한 분배금에 대해 확인해 주거나 논쟁을 하는 것은 거부했다고 CNBC는 전했다.

미국 NBC 방송에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방영된 '프렌즈'는 뉴욕에 사는 여섯 명의 젊은 친구들의 사랑과 우정을 코믹하게 그린 작품으로, 미국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또 첫 방영 후 시간이 많이 흐른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의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인기 콘텐츠 순위에 올라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프렌즈'가 2020년 5월 HBO 맥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출시된 이후 매주 최고 시청 콘텐츠 10위 안에 들었다고 이 회사 대변인의 설명을 인용해 전했다. /연합뉴스

젤렌스키 "러와 협상 없다" "전황 어렵지만 우리는 전진"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평화 협상 문제와 관련, "우리는 테러리스트와 어떤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및 유럽연합(EU) 당국자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평화협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은 내가 테러리스트와 대화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는 테러리스트를 믿을 수 없다. 그들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NBC 방송은 미국과 EU 당국자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낼 평화협상에 수반될 사항들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백악관은 당시 보도에서 "현시점에서(평화) 협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진행되는 어떠한 다른 대화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전황과 관련,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이것을 교착상태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더 빨리 전진하고 러시아에 대한 예상 외 공격을 위해 다양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한 뒤 "러시아가 지속해 공중을 지배하고 있으며 방공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의 진군은 느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시다 지지율 방어 '백약이 무효' 세금 36만원 깎아줘도 최저 기록

일본 정부가 1인당 4만엔(약 36만원)의 소득·주민세를 줄여주기로 결정한 뒤 이뤄진 여론 조사에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교도통신은 3~5일 1040명을 상대로 벌인 전화 설문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28.3%로, 지난달보다 4.0%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보도했다. 이는 교도통신 월례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역대 최고인 56.7%로, 10월보다 4.2%p 높아졌다.

기시다 총리가 발표한 감세와 관련해서도 '평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자가 62.5%에 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소득을 뒷받침해 경제를 선순환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경제 대책에 1인당 4만엔(약 36만원)의 소득·주민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애초 예상보다 비용이 늘어난 2025년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이하 오사카 엑스포) 개최에 대해 응답자의 68.6%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고 28.3%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미 대선 경합주 여론조사 트럼프 5곳서 바이든에 앞서

전국단위 조사도 높은 지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6개 경합 주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여유 있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보다 다소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에나대와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6개 주 3662명의 등록 유권자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양자 대결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48%의 유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유권자는 44%였다.

지역별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바다(52%대 41%)와 조지아(49%대 43%), 애리조나(49%대 44%), 미시간(48%대 43%), 펜실베이니아(48%대 44%) 등 5개 주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을 따돌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에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47%대 45%로 겨우 앞섰다.

이 같은 경합 주의 분위기가 대선까지 이어 나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보다 훨씬 많은 30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NYT의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와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나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두 후보 중 누구의 경제 정책이 더 믿을만한가"라는 질문에 경합 주 6개 유권자 5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답한 유권자는 37%에 불과했다.

최대 외교 현안이 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도 유권자 5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는 39%였다.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라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유권자가 71%로 압도적이었다.

CBS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26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의 경우 양자 가장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51%)이 바이든 대통령(48%)보다 3%포인트(오차범위 ±3.3%포인트) 높은 지지를 받았다.

미국 대선의 핵심 변수인 경제 문제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가장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18%에 그쳤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를 기록했다.

대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9%가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이 전쟁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답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이 전쟁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응답은 39%에 그쳤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